

사람과 자연을 감싸 안은

Rock & Branch

보라매공원 근로환경 개선시설

유현준

(주)유현준건축사사무소 대표,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개요

작품명	보라매공원 근로환경 개선시설
설계	유현준(주)유현준건축사사무소)
설계담당	허진성, 김재홍, 서다은
위치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
용도	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41만 5,141m ² (대상지면적: 530,66m ²)
건축면적	384,75m ²
연면적	465,90m ²
규모	지상 2층
높이	8,33m
주차	2대
건폐율	0.09%(72.50%)
용적률	0.11%(87.80%)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목재루버
내부마감	친환경 수성페인트
구조설계	(주)세움구조엔지니어링
시공	(주)푸른종원건설
기계설계	민성엔지니어링
전기설계	전기설계협인
설계기간	2015.2.~2015.12.
시공기간	2016.3.~2016.11.
공사비	6억 5,000만 원
건축주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직의 나무 루버로 마감한 상부 매스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상부 매스

나무는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무거운 바위는
아래인 땅에 놓여 있다.
건축 시설물이지만
가급적 자연의 일부로
보이게 만들고 싶었다.
이러한 구성을
그대로 따온 것이 보라매공원
근로환경 개선시설의
디자인이다.





상 옥상정원
하·좌 2층 중정 테라스로 향하는 계단
하·우 바위의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배치한 창고 매스



인터랙티브
(interactive)한
입면

테라스 공간의 한쪽 면은
자연이 감싸고 반대쪽은
건축물이 감싸 안는,
자연과 건축이 완성하는
원 안에 사람이 위치하는
공간 구성을 띠고 있다.
이때 위로는 하늘에서
따스한 햇빛이 내려오게 된다.
2층 중정 테라스 공간은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 최경채



2층 중정 테라스 공간

환경미화원을 위한 시설

이 프로젝트는 보라매공원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남녀 휴식공간과 청소도구 창고시설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 시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환경미화원들은 과거 다른 공사현장에서 쓰고 남은 가건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기존 시설에서는 일과를 마치고 깨끗이 씻고 퇴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퇴근길에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의 시설을 만들기로 결정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대상을 한 초청 공모전을 열어 당선작을 선정하고 건축하게 되었다.

산이 시작되는 곳

대지는 현재 보라매공원 관리사무소 옆의 대지로 공원 내 언덕의 산책로가 시작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이곳에 시설을 디자인할 때 처음으로 고려한 요소는 기존의 산책로가 방해받지 않는 시설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아래층은 필로티로 띄우고 2층 부분에 휴게공간을 위치시켰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미화원들은 공원을 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필로티를 만들 때 기둥으로 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이 요구된 창고를 몇 개의 박스로 만들어서 기둥 대신 상부의 시설을 받치는 구조체로 사용하였다. 이때 창고의 재료와 색상은 가장 저렴한 유로폼 거푸집으로 만들고 블랙으로 채색하였는데, 매스감이 무거워 보이게 하는 동시에 멀리서는 저층부가 그림자와 함께 사라져 보이게 해서 상부 매스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처리하였다.

바위와 나뭇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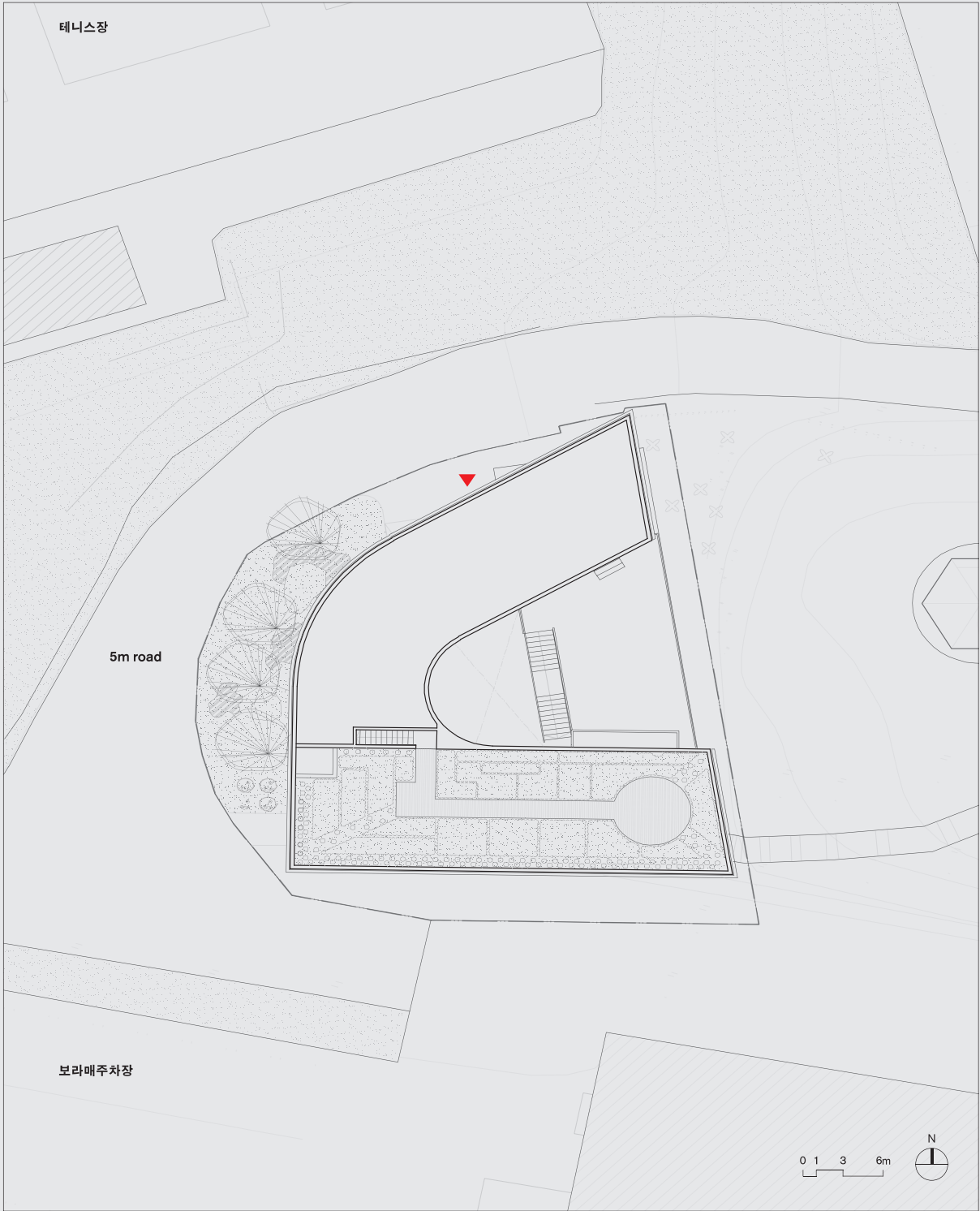
이 시설은 산과 대지가 만나는 경계부에 위치한다. 따라서 건축 시설물이지만 가급적 자연의 일부로 보이게 만들고 싶었다. 작은 언덕의 흐름이 필로티 공간을 통해서 흘러 내려오는 느낌이 나게 하고 동시에 건물 자체도 자연인 바위와 나무처럼 느껴지게 하고 싶었다.

보통 숲에 가면 나무와 바위가 주를 이룬다. 나무는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무거운 바위는 아래인 땅에 놓여 있다. 이러한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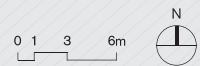
상 수직의 나무 투버로 마감한 상부 매스
하 바위의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배치한 창고 매스



테니스장

5m road

보라매주차장



배치도

구성을 그대로 따온 것이 이 건물 디자인이다. 저층부는 어두운 색상의 바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형태와 앵글을 가지는 창고 매스가 무작위로 놓여 있듯이 배치하였다. 다소 비대한 상부에 있는 매스는 나뭇가지처럼 보이게 처리하고 싶어서 수직의 나무 루버로 마감을 하였다. 나뭇가지는 선형의 부재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보이는 나무 마감보다는 루버 형태가 더욱 나뭇가지의 선형 느낌을 흉내 내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인터랙티브 재료

대지의 특징 중 하나는 대지의 모양이 반원형으로 되어 있고 그 반원형을 따라서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사람들은 이 건물을 뒤쪽에서부터 따라 돌아가면서 바라보게 된다. 이런 동선의 조건과 나무 루버를 이용해서 건축물의 재료가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한 입면을 만들고 싶었다.

보통 단순한 상자 모양으로 건축물이 만들어져 있을 때에는 건축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위치가 변해도 건물의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복잡한 형태는 관찰자가 주변으로 걸어 다니며 보면 몇 발짝만 떼도 다른 형태의 건물 모양으로 변형된다. 건물이 더 인터랙티브해지는 것이다. 보라매공원시설도 이러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싶었다. 다만 건물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재료가 변화하는 체험을 주고 싶었다.

이 건물의 상부는 반원형의 도로를 따라서 유로폼 거푸집으로 만든 거친 콘크리트 매스이다. 그 위에 목재 수직 루버를 부착한 형식을 띠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건물을 90도로 바라보게 되면 시야의 중심부는 목재보다는 노출콘크리트가 더 많이 보인다. 그리고 시야의 양쪽 면으로 갈수록 점점 목재가 많아지는 그라데이션을 보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이 곡선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이 건물을 바라보면 자신의 수직으로 바라보는 지점만 노출콘크리트로 보이고 나머지는 나무로 보인다. 다만 콘크리트로 보이는 부분은 내가 이동하게 되면서 점차 바뀌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의 건물에 2개의 건축 재료를 체험하게 만드는 인터랙티브 디자인이다.

©박영재



상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상부 매스
하 인터랙티브한 입면



상 2층 중정 테라스 공간
하 2층 중정 테라스로 향하는 계단

필로티 마당, 테라스, 옥상정원

이 건물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외부공간이 건물을 관통하도록 계획되었다. 일단 산책로를 이용하는 기존의 사람들이 건물이 들어서도 불편함 없이 길을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1층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필로티 부분은 사람이 관통해서 걸어갈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공간이다. 주변에는 창고 매스가 적절하게 공간을 잡아주고 있고 상부에는 곡선으로 돌아가는 매스가 하부 공간의 영역성을 규정해 주고 있다. 실제로 100여 명의 관계자분들이 참석한 건물의 오픈 행사를 이 필로티 공간에서 진행하였다.

2층에 있는 휴게시설은 남자와 여자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이 둘의 입구는 중앙에 위치한 테라스에서 시작된다. 이 중간 지역인 테라스 공간은 서측의 둥그런 노출콘크리트 벽체와 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늑하면서 동시에 자연을 잘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이 테라스 공간보다 좀 더 개방된 야외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은 한 층 더 올라가서 옥상정원을 즐길 수 있다. 보라매공원 근로환경 개선시설은 다양한 형태의 외부 공간이 존재하는 건축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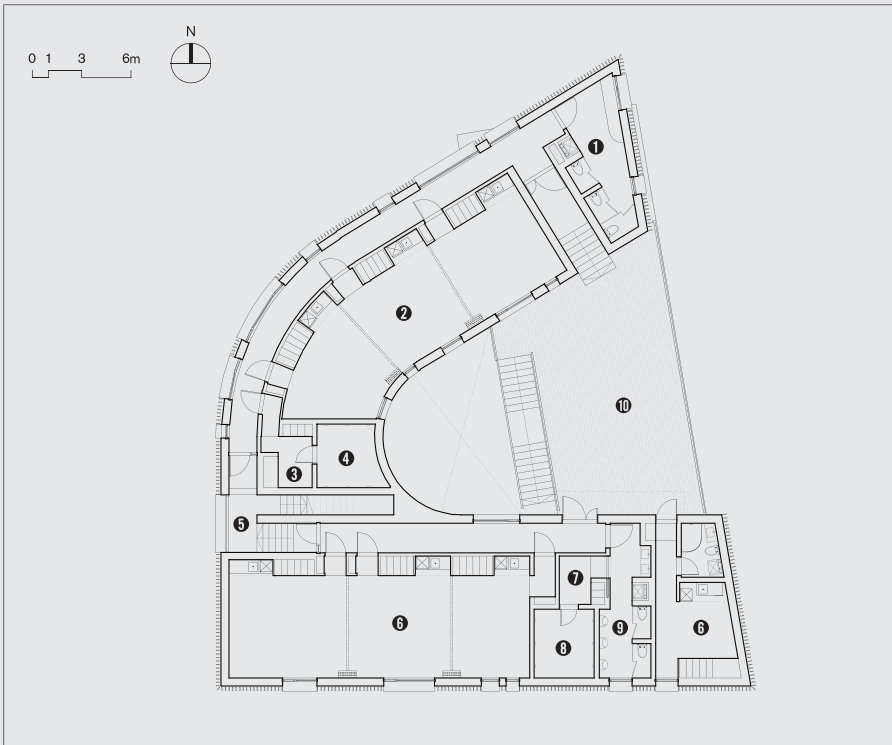
네 그루 소나무

공모전의 초기 당선작 안을 살펴보면 건물이 위치한 대지 내에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없다고 판단하여 나무를 모두 없애고 건물을 앉히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선 후 보라매공원 관리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대지 서측 도로변에 위치한 소나무 네 그루를 보존하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건물은 동측 언덕으로 더욱 밀리게 되었고, 그 부분을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소 심심할 수 있던 입면이 네 그루의 소나무와 오버랩되면서 자연스러운 건축 입면이 나오게 되었다.



1층 평면도

- ❶ 전기자동차 주차장
- ❷ 보일러실
- ❸ 창고 1
- ❹ 창고 2
- ❺ 창고 3
- ❻ 창고 4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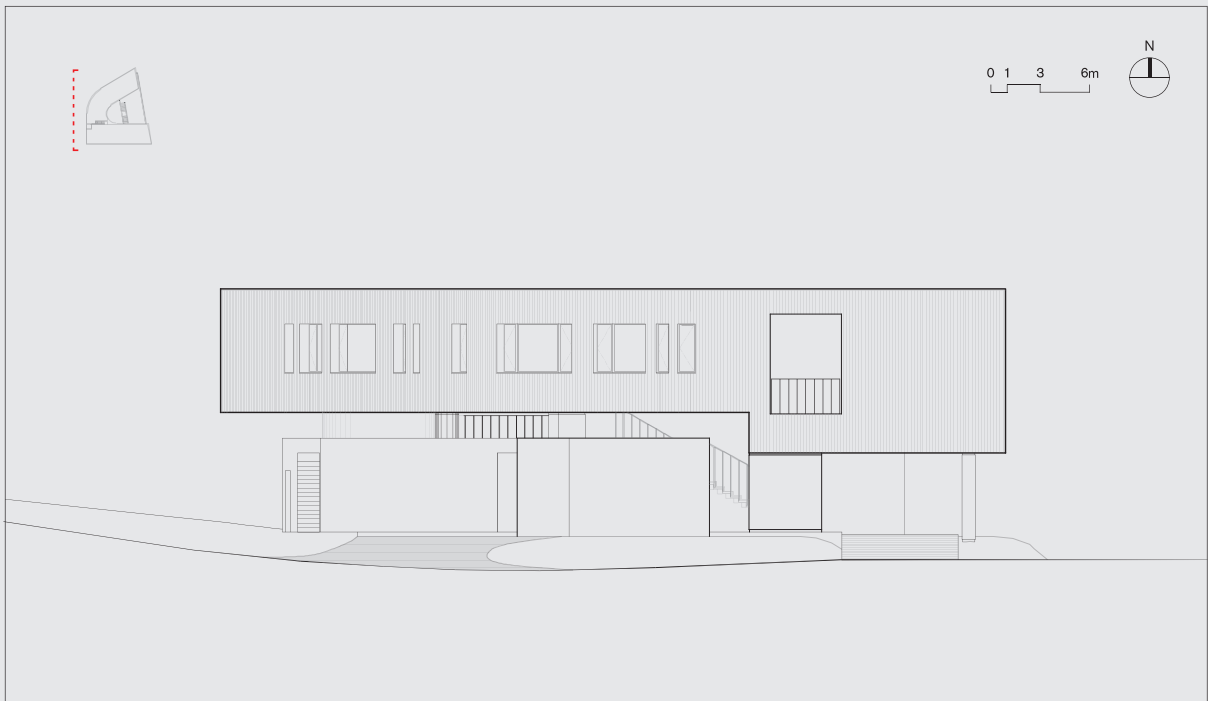
- ❶ 여자 화장실
- ❷ 여자 휴게실
- ❸ 여자 탈의실
- ❹ 여자 샤워실
- ❺ 발코니
- ❻ 남자 휴게실
- ❼ 남자 탈의실
- ❽ 남자 샤워실
- ❾ 남자 화장실
- ❿ 테라스

곡면의 벽체: 자연과 건축이 안아주는 공간

중정을 만들기 위해서 대지 모양을 따라서 건물을 바깥쪽으로 배치하면서 곡선의 매스가 나오게 되었다. 이때 두 가지 곡면이 나오는데 하나는 건물의 바깥쪽 입면을 차지하는 바깥쪽으로 휘 곡면이고, 다른 하나는 중정의 안쪽을 향하는 곡면이다. 바깥쪽 곡면은 나무 루버로 마감이 되어 있고, 안쪽 곡면은 노출콘크리트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서로 다른 마감 재료에 따른 느낌도 다르지만, 더 큰 차이는 곡면을 바라보는 사람이 곡면의 중심점이 위치한 면에 있느냐 아니면 반대 면에 있느냐이다. 특히 중정에서 바라보는 곡면은 창문이 적다. 그래서 곡면의 느낌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남자 휴게실 매스에서는 중정 쪽 곡면 쪽에 복도가 있는 쪽이고 북향이다. 난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창문을 내지 않았다. 남향을 바라보는 여자 휴게실 쪽의 곡면 벽에도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요청이 있어서 창문을 작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곡면의 느낌이 더 나는 콘크리트 곡면 벽체가 나왔고, 그 벽을 바라보는 곳은 남녀 환경미화원들이 모이는 중정 테라스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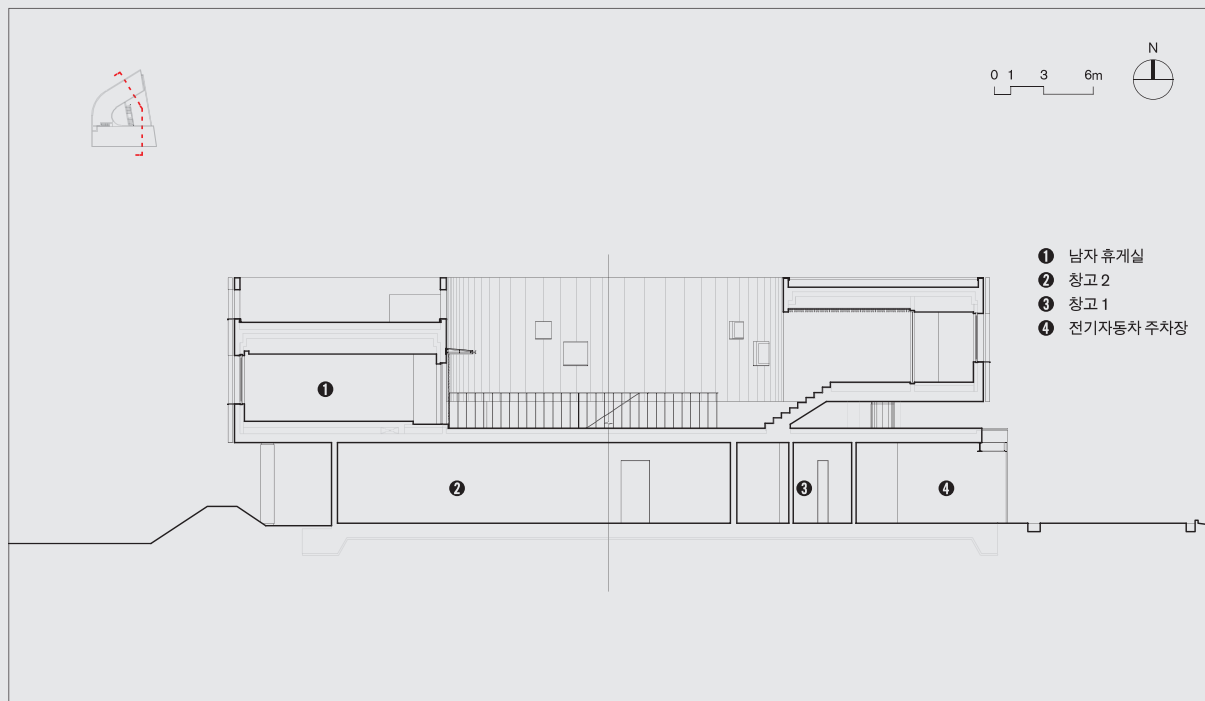


© (주) 아원 건축회사사무소

입면도

테라스에서 동측은 산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서측 면은 뜨거운 햇볕을 곡면의 벽체가 막아주게 되는데, 테라스 안에 있으면 벽체가 안아주는 듯한 포근한 느낌을 받는다. 그 이유는 테라스 공간이 곡면 벽체의 꼭짓점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서양 전통 건축에서는 아치 구조를 많이 사용해서 곡면의 꼭짓점이 있는 쪽에 위치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아치 구조로 만들어진 볼트나 돔 같은 공간은 대표적으로 곡면 벽체가 사람을 감싸 안는 공간이다. 보라매공원에서는 아치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감싸 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다른 점이 있다면 테라스 공간의 한쪽 면은 자연이 감싸고 반대쪽은 건축물이 감싸 안는, 자연과 건축이 완성하는 원 안에 사람이 위치하는 공간 구성을 띠고 있다. 이때 위로는 하늘에서 따스한 햇볕이 내려오게 된다. 2층 중정 테라스 공간은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 (주)유엔건축사사무소



단면도